

## 순교자

현대인과 성서 박도현 교수님  
전자정보공학부 20180474 남아리

이 책을 읽으면서, 종교라는 테마 자체도 읽기 버거운데 종교와 정치, 전쟁 모든 것이 엮여있다 보니 읽는 것에 많은 힘이 들었다. 또한 순교자의 뜻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떠나 의미, 사람들의 인식 등등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책을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었다.

〈순교자〉를 읽으면서 ‘순교’가 사전적 정의로 ‘자기가 믿는 종교, 즉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의미를 모른 채로 책의 앞부분을 읽어나갔을 때는 왜 군인들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며 사람들이 ‘순교자’가 맞는지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그 시대에 기독교와 목사, 종교가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 즉 대외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도 들었다.

그러나 ‘순교’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난 후, 왜 군인들이 14명의 목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왜 이것이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우리 삶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교는 훨씬 영향력 있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무언가를 믿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대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종교의 이러한 점이 바로 군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이유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종교가 대외적인 문제로 알려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군인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종교는 사람들의 신뢰, 믿음, 가치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종교는 매우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에게 퍼진 것이므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강압적인 종교제재에 싸웠으며 끝까지 순교를 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이 책속에서 꾸준히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순교자가 맞는가?*’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이 책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나의 주장과 생각, 믿음을 정리하고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정리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종교는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과 연결된 것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혼돈과 제대로 되지 않은 판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고 정치놀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부러진 신념 및 가치관과 그를 밑바탕해줄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함을 느꼈다.

그리고 위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들이 순교자가 맞다고 생각한다.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기독교인이나 목사도 인간이란 점을 잊지 마시오. 그들을 쥔 때는 다른 인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척도와 저울대 위에 올려놓고 그 감정과 허약함을 재어야 하지 않겠소. . . . 어떤 성직자도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내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끌려간 후에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 신을 부정하고 남은 건 고통을 겪는 인간밖에 없다고 하기는 했지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 시간동안 신을 믿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던 그 중간의 과정이 나는 순교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성직자, 목사라고 해도 신체가 찢기듯이 고통스러운 고문을 겪고 있는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는 신을 부정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들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을 계속 믿고 신념을 버리지 않았으며 고통과 신념 속에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충분히 순교라고 생각한다.

결국 전쟁, 고문이라는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순교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을 통해서 순교의 의미를 알고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어떤 것이 순교이고 어떠한 행동을 한 사람이 순교자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